

■ 히치하이킹 남미(1)

연재를 시작하며

하늘과 무척 가까이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파아람은 멀고 높았다. 여민 옷 사이로 와 닿는 안데스 4,000미터의 바람은 차고 청명하다. 언제나처럼 트럭 뒤 칸에서, 비포장 길이 만드는 불규칙적인 덜컹거림의 리듬에 실려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었다. 흙먼지 뒤집어쓰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동료 하나, 거센 바람에도 스페인어 책을 잡고 중얼중얼하는 동료 하나. 벗어놓은 신발과 거대한 배낭 여러 개, 그 외에는 인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거대한 안데스 산맥의 기암괴석, 이국적인 선인장, 키 작은 나무들,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만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비현실적일 정도로 선명한 색감과 그 색의 향기까지 느끼던 순간에, 내가 살던 회색의 도시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시간들은 어느덧 아련해져 있었다.

“남미 대륙에 온 몸으로 부딪혀 보자!”는 막연하고 아련한 포부를 품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은 3월. 시간이 지나면서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경로가 세워지고 함께 할 사람들이 구체화되었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여행만큼이나 다사다난했다. 여행 경비가 부족해, 우리의 계획을 기획서로 만들어 기업과 학교를 찾아다녔지만 허사이기 일쑤였으며, 멤버가 바뀌기도 하고, 우리끼리의 의견 조율이 힘들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힘이 빠지는 와중에도 항공권 예약과 미국 비자 신청을 비롯한 온갖 일들은 하루하루를 짊어 채웠다. 정말 내가 남미 땅을 밟게 될까, 스스로도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떠날 6월 30일은 꾸준히 다가와서, 난 마침내 남미로 향하는 비행기 앞에서 뿔뿔이 벌어진 마음을 다잡으며 섰다. 네 명의 동료, 여기저기서 힘겹게 지원받은 체재비, 커다란 배낭 하나, 그리고 남미 대륙을 히치하이킹만으로 누비겠다는 두근거리는 꿈이 나와 함께 놓여있었다. [안소연]

여행자 소개 (가나다 순)

김지원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03학번)

안소연 (연세대 법학과 07학번)
 이결희 (서울대 경제학부 06학번)
 이동훈 (서울대 인류학과 07학번)
 전화정 (연세대 법학과 07학번)

여행 일정

페루: 리마 - 쿠스코 - 마추픽추 - 쿠스코 - 푸노
 볼리비아: 코파카바나 - 라파스 - 포토시 - 우유니
 칠레: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 - 안토파가스타 - 라 세레나 -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멘도사 - 로사리오 - 부에노스아이레스 - 귀국

■ 발파라이소 가는 길

이 동 훈

그때, 우린 산티아고 외곽의 주유소에 앉아있었다. 칠레의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주유소는 두 회사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에소(ESSO)이고 다른 하나는 코펙(COPEC)이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휴게소가 딸려 있었다. 우리가 하릴없이 주저앉아 있던 곳은 에소.

발파라이소 가는 길. 발파라이소는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해변의 도시로 칠레의 문화적 수도라는 명예로운 이름이 붙은 곳이었다. 이날 우리가 출발한 도시, 산티아고와는 두 시간 거리에 있다. 맥도날드에서 제일 값싼 햄버거를 한입에 먹어치우고, 히치하이킹이 수월하도록 팀을 나누었다. 칠레는 페루나 볼리비아와 달



쿠스코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한 컷.

리 교통법규가 엄격해서(엄격하다고 해봤자 우리나라 수준이다. 어디까지나 페루와 볼리비아의 교통법규가 느슨했던 것이다) 트럭의 짐칸에 사람을 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칠레부터는 다섯 명이 다 같이 한 차에 타는 일이 불가능했고 셋과 둘로 팀을 나누면서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팀을 나누고 도시에 도착하면 대략 몇 시에 어느 광장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볼리비아와 칠레의 국경에 위치한 도시,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에서 이곳 산티아고까지 약속은 얼추 지켜졌고 약속을 어겨봤자 두세 시간이었다. 그러다보니 히치하이킹에 대한 우리의 자신감은 칠레의 하늘을 찌를 듯했다.

각설하고, 나와 발파라이소 가는 길을 함께한 사람은 화정이. 우린 발파라이소까지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히치하이킹을 서둘지 않았다. 일단, 산티아고 버스 터미널 옆의 주유소에서 발파라이소 가는 도로의 입구까지 데려다줄 차를 얻어 타고 에소 주유소에 내렸다. 주유소 주차장에 주저앉아 노닥거리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얘기하고, 우리의 여행을 보다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했다. 우리 팀이 활력을 잃었고, 그래서 자기도 지쳐버렸다는 얘기, 각자의 속마음을 속 시원히 드러낼 수 있는 대화가 팀 안에서 없었다는 얘기. 그러다 시계를 보니, 어이쿠, 시간이 꽤 지나 있었다. 안되겠다, 이제 슬슬 차를 잡자.

하지만 에소엔 발파라이소 가는 화물트럭이 없었다. 주유소 건물 옆에 트럭을 세워놓고 쉬고 있는 카미오네로(camionero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물어봐도 자기네들은 실어 나를 짐을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은 발파라이소에 가지 않는다는 대답뿐. 그러더니 옆에 있는 주유소, 코펙에 가보라고 했다. 오케이. 코펙은 여기서도 간판이 보일만큼 가까이 있었다.

우리는 히치하이킹에도, 코펙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 주제를 넘나들며 주절주절 얘기들을 쏟아냈다. 얘기를 하면서 걷다보니 코펙은 금방이었다. 이곳에서 화물 트럭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들에게도 “안녕하세요, 우린 한국에서 온 여행자입니다”로 시작하여 목적지가 어딘데 거기까지 가신다면 태워달라는, 입에 붙어버린 멘트를 날렸다. 그러다 푹푹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우리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는 막 휴게소에 도착하여 잠깐 요기를 하려는지, 화장실을 가려는지 불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

히치하이킹이 성공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칠레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코펙 주유소. 그 날의 사건으로 이렇게 덩그런 사진 한 장만 손에 남았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같다. 그러나 그 시원한 배설의 기쁨은 금세 잊힌다. 차에 올라타면 이내 끔찍하리만큼 길고 지루한 이동 시간이나 운전자와의 고달픈 대화에 시달린다. 그러나 발파라이소까지는 고작 두 시간밖에 안 걸린다. 이제까지 우리가 트럭에 매달려 하루 종일 비포장도로를 달리거나, 화물 트럭에 갇혀서 해가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기울어 가라앉을 때까지 곧게 뻗은 도로의 시각적 이미지를 주입받던 것을 생각하면, 두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다.

이처럼 히치하이킹에 성공했다는 기쁨, 두 시간이면 발파라이소에 도착한다는 기쁨에 눈이 멀어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휴

게소에서 돌아온 아저씨가 차문을 따자마자 뒷좌석에 배낭부터 일단 밀어 넣었다. 그리고 길의 흙먼지가 잔뜩 묻어 더러운 엉덩이를 좌석 시트 위에 얹었다. 그 다음은 신나는 출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신지 않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물루랄라.

운전자 아저씨의 이름은 크리스티안(Cristián). 저널리스트로 자길 소개한 그는 영어를 잘 하는 칠레의 “배운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치부 기자, 이런 느낌의 일을 하다가 지금은 뭔가 더 대단하고 멋진 일을 하고 있었다. 워낙 똑똑하고 활기 찬 사람이라 영어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면서 신나게 대화를 해댔다.

여긴 카사 블랑카(Casa Blanca)라는 지역인데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와인 메이커는 무엇이고, 페루 음식을 칠레에서 먹으려면 엄청 비싸다고 크리스티안이 말하면, 우린 그의 말에 열렬히 반응하고, 페루에서 본토 음식을 먹으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렴하다고 말했다.

웃고 떠들다보니 두 시간은 금세 지나갔다. 크리스티안이 말하길 이제 곧 발파라이소라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없었다. 자외선 차단제와 랜턴, 무엇보다 카메라가 들어있는 내 손가방이. 화정이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티안이 불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내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면서 손가방을 차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아차, 차를 탈 때 다급한 마음에 배낭과 몸만 실었던 거구나.

발파라이소의 거리들, 시꺼멓게 때가 타고 불그죽죽하게 녹이슨 건물들.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는 상자 같은 집들. 머릿속에 있던 발파라이소가 진짜 발파라이소에 자리를 내주는 순간. 어느 유명한 도시를 만날 때나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 여행이 저를 피라로 이끄는



아름다운 해변 휴양도시, 비냐 델 마르

날이 찾아왔습니다. 피라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피라는 원래의 피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하던 발파라이소는 여전히 내 머릿속 어딘가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도시를 발파라이소라고 부를 수도, 어떻게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거기에 붙일 수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도 없을 것이다.

크리스티안은 발파라이소의 옆 동네라 말할 수 있는 비냐 델 마르에 살았다. 다른 세 사람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 푸에르토 역은 그의 집으로 가는 길과 반대 방향이었지만 크리스티안은 친절하게도 역 바로 앞에 우릴 내려주었다. 하찮은 (건물이라 부르

기도 낮선)구조물에 뚫린 어두컴컴한 통로로 걸어들어 가면 나타나는 몇 평 안 되는 공간이 푸에르토 역의 전부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역의 입구에도, 역사 안에도 없었다. 지금까지 우린 도시의 중심이라 할 만한 지점에서 재회했고 그곳에서 우리의 도시 “라이프”가 시작되곤 했었다. 다른 팀원들도 이곳에 없고 하니 어쩌면 그들이 아직 도착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 장소가 이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낮선 도시를 발견한 기쁨과 어리둥절함, “이곳이 과연 약속 장소가 맞을까”라는 의문, 일단 발파라이소에 도착했다는 데서 느끼는 안도감에 휩싸여 손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머릿속 한 구석에 밀어놓았다. 발파라이소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역 앞의 광장을 어슬렁거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차 한 대가 앞에 섰고 뒷자리에 앉은 지원 형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그런데 차에 탄 사람은 지원 형뿐이었다. 형은 운전사와 한참 작별인사를 나누더니 차에서 내렸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어찌고 형 혼자 왔어?”

“혼자 길을 걸어보고 싶었어.”

이 사람 상습범이다. 안토파가스타에서 라 세레나 가는 길도 혼자 떠나보겠다고 해서, 라 세레나에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더니 또 이랬다.

역사 안에 주저앉아서 손가방을 주유소에 놓고 온 애길 했다. 그랬더니 형은 누가 집어가기 전에 얼른 찾아오라고 했다. 물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찾아오는 것이 맞겠지만, 어떻게 온 발파라이소인데! 산티아고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카메라 잃어버린 것 따위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애써 잊으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온 발파라이소’도

크지만 ‘어떻게 기록해온 우리의 추억’이 더 컸다. 귀찮고 힘들겠지만 카메라를 위해서라면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우리 셋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을 탁탁 털었다. 왕복 버스비는 얼추 나올 것 같았다. 만약 돌아오는 버스비가 없으면 어쩌려고. 글썄, 거기까진 잘 모르겠네, 히치하이킹이라도 해야겠지.

사람들한테 물어 물어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여행을 시작하고 도시 위에서 이처럼 혼자되어 보긴 처음이었다. 물론 관광객으로서 길을 거닐며 거리와 사람들을 구경하고 다닌 적은 있었겠지. 그런데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까지 간 다음 버스를 타고 산티아고에 가서 우리가 쉬었던 주유소에서 손가방을 찾아 다시 발파라이소로 돌아오라는 미션을 홀로 해결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부담으로 숨이 막히는 첫 경험이었다.

칠레의 버스 터미널은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버스 회사들이 따로 창구를 세워놓고, 승객들은 제 맘에 드는 회사의 창구로 가서 표를 사는 체계였다. 남미에 와서 버스라곤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터라 이진 뭐, 버스타기가 히치하이킹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시스템이 몸에 익은 사람한테 유연한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무조건 들이대서 “태워달라”고 말하는 편이 쉬울 것이다.

어쨌든 간신히 표를 사서 산티아고 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적당한 실내 온도, 안락한 좌석.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버스를 탔으니 일단 산티아고까진 무사히 가겠지.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시작될 나의 여정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다. 게다가 주유소에서 손가방을 못 찾으면 어쩌나. 시험 점수 발표보다 두려운 ‘공개’의 순간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서 잠이 들었다. 내가 꿈을 꿨던가. 저절로 눈이 떠지고,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오락가락, 이제 집인가?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한 달에 한두 번, 고향집에 내려가는 버스를 탈 때면 긴장이 풀리곤 한다. 차 안에서 한숨 폭 자다 눈을 뜨면 익숙한 도시, 그리고 터미널 앞으로 마중 나온 엄마. 낯선 대도시에서 홀로 아등바등하던 삶은 잠시 잊히고 휴식과 익숙함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는 산티아고.

버스에서 내려 터미널을 나설 때부터 나의 여정은 한마디로 ‘추적’이었다. 오늘 낮에 이동훈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지나온 길 위에 바람결처럼 남은 나의 발자국을 추적하라. 터미널은 이날 오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아침을 먹었던) 맥도날드가 있는 건물의 앞에 있었다. 그렇다면 길 건너편의 주유소가, 나와 화정이가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던 곳으로군. 저기서, 택시 기사들은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던 학생 한 명을 만나기도 했었지.

여기서 맘씨 좋은 아저씨의 차를 타고 예소까지 갔던 것이다. 손가방을 찾으려면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혼자 히치하이킹을 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돈이 좀 있으니 택시를 타기로 했다. 오늘 낮에 만난 학생은 택시 기사들이 순 날강도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지.

“발파라이소 가는 길에 있는 코펙 주유소까지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에게, 우린 히치하이킹으로만 남미 대륙을 여행하는 대단한 녀석들이라고 자랑하고,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는 애길 신나게 늘어놓았다. 웬지 맘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다. 이 순간만큼은 스페인어도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기사 아저씨는 내가 말하는 주유소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 내게 남은 할 일은 주유소에서 손가방을 찾아보고 있던 터미널로 돌아와서 발파라이소 행 버스를 타는 것뿐이었다. 아마 이런 생각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주유소에 손가방이 있기만 해준다면 정말 기쁠 텐데. 지금 기분으론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온몸을 기분에 맡기고 있는데, 미터기가 눈에 띄었다. 기계가 가리키는 금액은 내가 가진 돈의 액수를 향해 빠르게 치달아 오르고 있었다. 처음엔 잘못 봤거나 가진 돈의 액수를 헛갈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마침내 미터기의 금액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같아졌고 난 조용히 기사 아저씨를 불렀다.

“아저씨, 여기서 내려주세요.”

그는 여기서 코팩까지 차로 15분 거리고 밤의 고속도로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죠. 돈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발파라이소 가는 고속도로 어딘가에 홀로 내던져졌다.

왼편에선 차들이 미친 듯 달리고 오른쪽엔 철조망 너머로 잡초만 무성한 들판이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건 차로 15분 걸린다는 거리. 계산해보자. 택시가 8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15분 거리란 20킬로미터를 말한다.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사람이 걷는 속도는 한 시간에 5킬로미터. 그렇다면 차로 15분 거리란 내가 네 시간동안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차와 다리의 속도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이미 밤은 깊었고 네 시간동안 열심히 걸어 설사 가방을 찾는 다한들 발파라이소에 돌아가면 이미 새벽일 것이다. 주유소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할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다. 물론 발파라이소에서 날 기다릴 사람들의 애간장은 태우겠지만, 지금 기억하기로 이젠 사람들에게 끼칠 심려보다 당장 내 앞길에 대한 걱정이 백만 배는 컸다.

어찌지도 못하고 일단 걸었다. 이대로 네 시간동안 걷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단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를 태워줄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히치하이킹으로 같은 길을 두 번이나 왕복했다.

히치하이킹을 할까.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달리는 차들의 전조등 불빛에 비친 내 엄지손가락. 문득 배낭을 발파라이소에 놓고 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여행자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배낭이 없다면 운전자들한테 나란 사람은 밤길을 배회하는 정체 모를 동양인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긴 차들이 미친 듯 달리는 고속도로다. “어, 저 사람은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난 저만치 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혼자라는 사실. 수많은 운

전자들 앞에서 홀로 손을 흔드는 일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무장해제. 우릴 지금 이곳 칠레에 있도록 도와준 땀땀함은 다른 팀 사람들과 함께 발파라이소에 두고 왔다. 암담. 미친 사람처럼 밤길을 헤집으며 때때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어둠 속을 가르는 저 무심한 전조등 불빛들 중의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내 앞에 서줄 것 같지도 않아서 금세 내려버리고는 했다.

그런데, 저 멀리 에소(ESSO)라고 쓰인 새하얀 간판이 보인다. 설마 저 에소가 오늘 낮의 에소일까? 하지만 기사 아저씨는 분명 “차로 15분 거리”라 했는데, 아저씨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말의 틀릴 리 없고, 내가 벌써 네 시간을 걸었을 리는 더욱더 만무하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저 에소는 그 에소가 아니란 말이 된다. 그래도 기대가 되는 걸 어떡해. 기사 아저씨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

주유소의 입구가 가까워지면서 내 머릿속은 이날 낮의 기억을 더듬고 있었다. 지금 보이는 이 입구와 아까 본 입구의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다른 것 같기도, 같은 것 같기도 했다.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가보자. 이날 낮에 화정이와 난 예소의 주차장에 주저앉아 한참동안 노닥거렸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흔적이……. 여기 있다! 진흙이 아스팔트 위에 얇게 깔린 채 살짝 굳어 있는 것을 내가 발뒤꿈치로 긁어낸 흔적, 그리고 배수구에 버린 두 개의 담배꽂초! 아까의 난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했던 듯, 지금의 날 위한 의심할 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던 것이다.

이제야 눈앞에 보이는 주유소의 풍경이 낮의 기억과 겹쳐졌다. 그렇다면 코팩은 바로 저기 있다! 역시나 익숙한 간판이 시야에 들어왔다. 내 흔적을 제대로 뒤쫓고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걸었다. 풀숲, 화정이와 내가 여행과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주고받으며 걸었던 곳이지. 화정이와 떠들면서 걸을 땀 금방이었는데, 얼른 도달하기만을 바라며 홀로 걷고 있는 나한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마침내 도착하여 휴게소 건물 바깥을 살펴보았다. 먼저 크리스티안의 차가 서있던 자리로 가보았지만 손가방 비슷한 것도 없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 휴게소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손가방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보았으나 다들 고개만 설레설레. 휴게소의 어떤 손님이 산티아고 쪽에서 오는 길에, 길옆에 굴러다니는 노란색 가방을 봤다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시 예소 쪽으로 걸어가며 길 주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길 위는 너무 어두워서 주변 사물들이 잘 식별되지 않았다. 게다가 가방을 잃어버린 곳이 주유소인데 길옆에서 가방이 텅굴고 있었다면 내용물은 이미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단 말 밖에 더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칠레인들한테 자선을 베풀고 말았다.

혹시나 하는 맘에 기어코 에소까지 가서 그곳의 휴게소 직원들한테 사정을 설명했으나 “안됐다”는 위로 밖에 얻은 것이 없었다. 게다가 에소 가는 길에 마치 좀비처럼 서있던 더러운 몰골의 남자 앞을 지날 때는 칼이라도 맞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했었다. 다행히 코팩으로 돌아올 땐 어디론가 가고 없더라.

코팩의 경비원쯤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은 특별히 나를 챙겨주었는데 노란색 가방을 봤다는 손님의 말을 전달해준 것도 그 사람이었다. 코팩으로 돌아가자마자 그가 문 앞에서 날 맞이했고 혹시나 그새 가방을 찾지 않았나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 없는 건 없는 거였다.

이제 난, 패배의 쓴잔을 마신 장군이 되어 전리품도 말도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주머니가 텅 비어버린 지금 발파라이소로 돌아갈 방법은 딱 한가지 밖에 없었다. 히치하이킹. 남자 직원은 나를 주유소로 데려가서 그곳의 직원들에게 소개해주었고 주유소 직원들은 차를 잡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옆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말했다.

경비원처럼 보였다는 남자 직원과 주유소 직원들이 차들에게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같았지만 마음이 급해서였는지 시원찮아 보였다. 자기 일도 아닌데 신경써주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내 일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름을 넣고 있는 차 한 대에 다가갔다.

세련되고 고상한 분위기의 중년부부가 탄 차였다. 그들한테 내 사정을 설명하면서 만약 발파라이소까지 간다면 태워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그들은 발파라이소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날 태워줄지 말지 무척 고민하는 눈치였다. 운전석에 탄 아저씨는 날 한참동안 쳐다보았고 조수석의 아주머니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불쌍한 여행자를 태우는 일에 있어서 아내의 권

한은 거의 절대적이다. 남편이 태워주고 싶어도 아내가 싫다면 그걸로 끝이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에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아주머니를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녀와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눈빛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뭐라고 의논을 하더니 나를 돌아보며 “시(Si - 스페인어로 ‘yes’라는 뜻)”라고 대답했다.

차 안에서 부부와 이런 저런 얘기를 했다. 칠레의 대입 시험, 그분들이 사는 곳과 직업, 한국의 역사와 칠레의 역사 등등. 이분들은 비냐 델 마르에 살고 있으며 아저씨가 의사였다. 교양 있고 꽤나 부유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다. 아주머니는 때때로 호감어린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있던 카사 블랑카와 와인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다. 새롭고 재밌는 얘기인 것처럼 들었지만 크리스티안과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이분들은 날 푸에르토 역까지 태워주었다. 어둠이 내린 푸에르토 역. 팀 사람들을 다시 만나 여기까지 히치하이킹해서 온 얘기를 해줄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서 내리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시 오라고.

몽클. 발파라이소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안도의 한숨. 그리고 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기쁨. 게다가 당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여기까지 태워주고, 혹시라도 이곳에서 홀로 밤을 보낼까 걱정해주는 저분들의 마음에 감동. 가슴이 벅차올라 역으로 뛰어가다 길 반대편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지원 형과 걸희 형을 발견했다.

“형!” 눈물의 재회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역 앞의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분들한테 돌아가 일행을 만났다고 말했고 그분들은 기뻐하며 차를 돌려다. 역 맞은편의 주유소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팀 사람들. 두 시간 전에 간신히 도착했다는 안소연, 이걸희 팀.

“그렇게 차를 못 잡아서 어떡하나, 너랑 걸희 형이 발파라이소 한번 오는 동안 난 두 번이나 왔다.” 이것도 자랑이라고 우쭐대본다.

“안소연이랑 걸희 형 빼고 우리끼리만 히치하이킹으로 쿠스코 다시 찍고 오자. 그래야 이 사람들이랑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시간을 맞추겠네.”

뭣도 모르고 택시를 잡아탄 죄로 두 번이나 히치하이킹을 해야 했지만, 이건 나름대로 행운이라고 해야 하나. 세상의 어느 누가, 발파라이소 가는 길을 두 번이나 히치하이킹으로 지나보겠어. 칠레의 밤길 위에 홀로 서본 아찔한 경험이나, 중년 부부와 맺은 인연도 마찬가지다. 이 경험은 오직 내 것이다. 누구의 기억에도 없는, 나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물론 잃어버린 카메라는 아직까지도 생각날 때마다 아쉽다. 하지만 그것도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면 적절한 표현이 될까. 어쨌든 난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히치하이커로 등극한 것이다. 어느 누가 이 영광의 이름에 흠집을 낼 수 있겠는가. 누군가, “네가 히치하이킹으로 여행해봤댔자 얼마나 했겠어?”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지. “난 히치하이킹으로 같은 길을 두 번 왔다갔다한 사람이야.” □